https://doi.org/10.21186/IPR.2023.8.3.153

# 『자평진전』 겸격(兼格)의 주체 선정에 관한 연구

최원호*, 김기승**
목원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작곡학부*,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동양학과**

# A Study on the Subject Selection of Adjunct-Structure in 『Zi-Ping-Zhen-Quan』

**Won-Ho Choi*, Ki-Seung Kim****
**Department of Orchestra & Composition, MokWon University***
**Department of Oriental Study, 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요 약** 명리학의 격국(格局) 해설서라 불리는 심효첨의 『자평진전(子平眞詮)』의 간명 방법은 격국(格局)을 선정하고 격(格)의 길흉을 구분하여 순역(順逆)의 원리에 따라 상신(相神)을 설정한다. 이때 월지(月支)의 지장간(地藏干)이 두 개 이상 투간(透干)하여 여러 격을 이루게 되어 겸격(兼格)이 되는 경우 격의 주체를 최종적으로 알고 있어야만 상신(相神)을 설정하고 격의 성패(成敗)를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자평진전』에서는 겸격의 구조와 의미만을 설명하였고 겸격의 최종 주체를 결정하는 방법은 기술되지 않았다. 본 연구자는 겸격의 주체를 선정하는 연구를 위해 각종 문헌을 고찰했고 여러 가지 겸격의 실제 사례를 월령과 격국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여 월지와 회합(會合)한 지지(地支)의 종류, 월지의 지장간(地藏干)에서 투간된 천간의 기세(氣勢)와 일간(日干)의 강약(强弱)에 관련되었다는 공통된 결과를 도출했고 그 법칙을 주관적으로 정리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겸격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자평진전, 겸격, 격국, 상신, 명리학

**Abstract** Shen-Xiao-Zhan's 『Zi-Ping-Zhen-Quan』, which is called a commentary on Chart-Structure in MyungLi-ollgy, After selecting the Chart-Structure and classifying the good luck and bad luck of the case, the Phase-usage is set up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hun reverse. At this time, if two or more the sky symbol hidden in the ground of Monthly intertwine to form several Structure and become Adjunct-Structure, the subject of Structure must be finally known to set up Phase-usage and succeed Structure and failure can be judged. However, in 『Zi-Ping-Zhen-Quan』, only the structure and meaning of Adjunct-Structure were explained, and the method of determining the final subject of Adjunct-Structure was not described. This researcher reviewed various literatures for a study on selecting the subject of Adjunct-Structure, and compared and analyzed various actual cases of Adjunct-Structure by dividing them into Monthly and Chart-Structure. Common results related to the type of sign of the land that met with Monthly, the energy force of the sky sign projected from the sky symbol hidden underground in Monthly and the strength and weakness of the body were drawn. and the law was organized subjectively. It is believ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reduce the confusion of Adjunct-Structure.

**Key Words** Zi-Ping-Zhen-Quan, Adjunct-Structure, Chart-Structure, Phase-usage, MyungLiollgy

Received 28 Apr 2023, Revised 13 May 2023
Accepted 24 May 2023
Corresponding Author: Ki-Seung Kim
(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Email: kbs4984@hanmail.net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 1.1『자평진전(子平眞詮)』의 간명 체계

명리학의 고서 중에 격국(格局)에 관한 해설서라 불리는 심효첨의『자평진전(子平眞詮)』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은 월령용사지신(月令用事之神)과 격국 그리고 상신(相神) 이론[1]이라 할 수 있다.

『자평진전』의 간명 방법은 우선 사주 명조 전체를 파악한 후 월지 지장간(支藏干)의 투간이나 월지의 회합(會合)을 살펴본 뒤 올바른 격국(格局)을 선정한다.[2] 그리고 선정된 격국을 길격과 흉격으로 구분하고 순역(順逆)의 원리에 따라 상신(相神)을 설정한다.

이후 길격에서의 격이나 흉격에서의 상신을 극(剋)하는 기신(忌神)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 기신으로부터 격이나 상신을 구제 대응하는 구응(救應)을 찾는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하면서 십성(十星)의 통근(通根) 및 투간(透干)이나 합거(合去) 및 충극(沖剋) 등을 자세히 살펴서 기세(氣勢)가 유정(有情)한지 무정(無情)한지의 흐름을 잘 읽어야만 한다.[3] 또한 행운(行運)의 변화에서 사주 원국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도 철저하게 분석해야만 격국의 성패(成敗) 변화를 분석하여 정확하게 간명할 수 있다.[4]

## 1.2 문제의 제기

『자평진전』의「논용신변화(論用神變化)」에서는 격을 선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 "①辛일주가 寅月에 태어났고 丙이 투간하면 재격이 변화하여 정관격이 된다. ②壬일주가 戊月에 태어났고 辛이 투출했다면 칠살격이 변화하여 인수격이 된다. ③癸일주가 寅月에 태어났고 甲은 숨어있고 丙이 투간하거나, 寅이 午, 戌과 회합(會合)하면 상관격이 변화하여 재격이 된다. 설령 정관이 투간해도 왕한 재성이 정관을 생한다고 논하면 되지, 상관이 정관을 극한다고 논할 것은 아니다. ④乙일간이 寅月에 태어났고 戊가 투출했다면 재격이 되고, 寅이 午, 戌과 회합하면 월겁이 변화하여 월이 생하는 식상이 된다."[5]

위 인용문을 살펴 요약하면 바로 월지 지장간(支藏干)에서 투간한 것이나, 월지가 회합된 것을 격으로 선정한다는 취격(取格) 논리를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위 인용문 중 마지막 구절인 "乙일간이 寅월에 태어났고 …(중략)… 寅이 午, 戌과 회합하면 월겁(月劫)이 변화하여 월이 생하는 식상(食傷)이 된다"라고 기술되었는데, 여기서 식상이란 십성(十星) 중 식신(食神)과 상관(傷官) 두 개 모두를 뜻한다. 격으로 구분한다면 식신격은 길격이라 순용(順用)을 해야 한다. 한편 상관격은 흉격이라 역용(逆用)을 해야만 한다. 즉 격의 길흉 구분은 물론 상신(相神)의 설정까지 할 수 없기에 식신격과 상관격 둘 중 어떤 격인지를 확실하게 구분하지 않는다면 사주의 간명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 다음으로는 투간한 것으로 격을 선정했을 때 겸격(兼格)이 되었을 경우의 문제이다. 겸격이 된 것을『자평진전』의「논용신변화」에 기술된 "寅월에 태어난 辛金에 정관 丙火가 투간했는데, 정재 甲木이 같이 투간했을 경우 정재격을 이룬 것이고 정관격은 단지 겸격"이라 했고, 이어서 "寅월에 태어난 癸水에 정재 丙火가 투간했는데 상관 甲木이 같이 투간했을 경우 상관격이고 정재격은 단지 겸격"이라고 했다.「논용신변화」에 기술된 겸격의 예를 든 사주는 생지 월령을 공통적으로 사용한 寅월과 申월 뿐이다. 즉 변격(變格)이 되지 않는 경우를 겸격으로 설명한 것으로서 지장간의 정기를 격의 주체로 삼는다.『자평진전』에서 겸격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한「논용신순잡(論用神純雜)」에서는 겸격이 서로 상생하거나 상극으로 서로 이득을 본다면 순수한 겸격이라 길하다고 했고 겸격이 서로 상생하거나 상극으로 서로 일을 도모할 수 없다면 혼잡한 겸격이라 흉하다고 했다.

겸격(兼格)이 되는 경우, 격의 주체 및 격국이 최종적으로 어떠한 격으로 결정되었는지를 결과적으로 알고 있어야만 순역(順逆)의 원리에 따라 격국별 상신(相神)을 설정하고 사주 간명을 할 수 있다. 하지만『자평진전(子平眞詮)』에는 겸격 이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겸격의 최종 주체가 되는 격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기술되어 있지 않다.

1) 루즈지 原著, 김연재 譯,『명리학의 이해Ⅱ』, 사회평론, (2018), 75~78쪽 참조.
2) 김기승,『명리학정론上』, 다산글방, (2020), 353~374쪽 참조.
3) 김성태,『격국과 용신』, 새움, (2006), 20~22쪽 참조.
4) 김미정, "『자평진전』의 격국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68~79쪽 참조.
5) 심효첨 原著, 김기승·나혁진 編譯,『산음 자평진전』, 다산글방, (2021), 126~127쪽. "如辛生寅月逢丙而化財為官壬生戊月逢辛而化煞為印癸生寅月藏甲透丙會午會戌則化傷為財. 卽使透官可作財旺生官論不作傷官見官乙生寅月透戊為財會午會戌則月劫化為食傷."

한편『자평진전』에서 겸격(兼格)의 주체를 선정하는 주제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관련된 선행연구는 현재까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므로 연구자는『자평진전』에서 겸격(兼格)의 주체를 선정하는 방법론에 관한 문헌 고찰을 위해 먼저 본 연구 주제인 심효첨(沈孝瞻)의『자평진전(子平眞詮)』은 물론이고 십정격(十正格)의 체계를 만든 고전(古典)인 진소암(陳素庵)의『명리약언(命理約言)』과 십정격이 체계화되고 형성되기 이전의 격국에 관련된 자평명리학(子平命理學)의 고전인 서대승(徐大升)의『자평삼명통변연원(子平三命通變淵源)』과『연해자평(淵海子平)』, 그리고 장남(張楠)의『명리정종(命理正宗)』의 구체적인 이론과 수록된 격국별 예문들을 고찰하고 근·현대에 저술된『자평진전(子平眞詮)』의 격국 연구에 관련된 각종 논문 및 문헌을 고찰한다. 다음으로 여러 가지 겸격의 사례를 월령별 격국별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여 겸격의 주체를 선정하는 방법론에 관한 합리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寅, 申, 巳, 亥 월령의 취격

심효첨의『자평진전(子平眞詮)』에서는 월지에서 투간한 것을 격(格)으로 선정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하지만,『자평진전』의 모든 예시에 나타난 寅, 申, 巳, 亥 월령은 월지 지장간(支藏干)의 여기 또는 중기가 아무리 투간한다 해도 결국에는 정기를 격(格)으로 취하고 있다. 이는 심효첨이『자평진전』에서 월지에서 투간한 지장간(支藏干)을 격을 선정한다고 말한 자신의 논리가 잘못되었음을 확인시켜준다. 이 논리의 모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최원호(2023)[6]는『자평진전』에 수록된 예시문에 들어있는 인물들의 사주 명조들을 살펴보고 연구한 결과 그 공통점을 찾아냈다.

『자평진전』에서의 寅, 申, 巳, 亥 생지 월령의 취격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일단 월지 그 자체에서 먼저 취격을 한 후 월지가 만약에 삼합회국을 한 상태에서 투간해야지만 지장간의 중기를 변격으로 삼아 격(格)을 취하였다. 지장간의 여기인 戊土는 회합이 될 수 없기에 취격법에서 제외된다. 즉 寅, 申, 巳, 亥 월령은『자평진전』의 책의 분류상, 변격(變格)되기 이전인 월지, 그 자체의 십성을 먼저 분류시켜서 책에「논정관」,「논재」,「논인」편 등에 삽입하였다. 그것들이『자평진전』의 해석을 난해하게 만든 것이다. 다시 말해 寅, 申, 巳, 亥 월령은『자평진전』의「논정관」,「논재」,「논인」편 등은 격국으로 분류한 것이 아닌 월지의 십성 자체로 분류한 것이다.『자평진전』寅, 申, 巳, 亥 월령의 취격 방법은 월지 그 자체에서 취격을 한다.[7]

### 2.2 子, 午, 卯, 酉 월령의 취격

심효첨『자평진전』의「논용신변화」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 "용신은 모두 월령이 주관한다. 그러나 월령의 지장간은 하나가 아니므로 용신은 결국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십이지지 중 子, 午, 卯, 酉(왕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숨겨놓은 것이 있는 셈이니, 辰, 戌, 丑, 未(묘고)에만 필요한 얘기가 아니다."[8]

위 인용문을 보면 격(용신)의 선정은 월령 지장간(支藏干)에서 투간한 것으로 결정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子, 午, 卯, 酉 월령 이외에는 전부 지장간에 숨겨놨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숨겨놨다는 것이란, 지장간에 다른 오행을 숨겨놨다는 뜻이다.『자평진전』「논용신변화」의 이 구절 때문인지 예문에는 子, 午, 卯, 酉 월령에서 투간해도 월지의 정기 그대로를 격으로 선정하고 있다.

심효첨이『자평진전』을 집필하기 훨씬 이전에 진소암(陳素庵)이 먼저 저술한『명리약언(命理約言)』에는 지장간의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 "옛 서적에 음간(陰干)은 子, 午, 卯, 酉에서 생(生)을 한다고 했는데 子, 午, 卯, 酉 중에는 乙, 丁, 辛, 癸에 해당하는 날은 배당을 하고, 어찌하여 장생지(長生地)란 말만 있고 날짜는 배분하지 않았는가. 장생지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날짜를 할당해 주어야 하는데 어찌하여 날(日)을 나누어 배당하지 않은 것인가? 또 양간(陽干)의 묘지(基地)에는 날짜를 나누어 놓고 있으면서 음간의 묘지에는 그렇게

6) 최원호, "명리학 격국 상신의 연원과 재해석에 관한 연구.",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7) 최원호, "명리학 격국 상신의 연원과 재해석에 관한 연구.",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131~136쪽 참조.

8) 심효첨 原著, 김기승·나혁진 編譯,『산음 자평진전』, 다산글방, (2021), 124~125쪽. "用神旣主月令矣然月令所藏不一而用神逐有變化二支中除子午卯酉外餘皆有藏不必四庫也."

하지 않았는가?"[9]

심효첨은 『자평진전』에서 子, 午, 卯, 酉 월령의 지장간에는 오행을 숨기지 않았다고 단순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위 인용문에 나타난 진소암의 『명리약언』 주장처럼 심효첨의 간단한 설명은 보편적으로 설득력이 약하다고 생각되므로 본 연구자는 子, 午, 卯, 酉 월령은 오행은 같으나 지장간 속에 음양이 다른 두 개의 천간이 여기와 정기에 나누어 암장되어 있다고 정의내린다.

한편 午 중 지장간 己土는 운에서 투간하면 己土가 작용을 한다는 뜻으로서 격으로 선정하란 뜻은 아니다. 午 중 己土의 투간을 격(格)으로 선정하는 예시는 『자평진전』에는 기술되지 않았다.[10]

子, 午, 卯, 酉 월령 역시 『자평진전(子平眞詮)』의 목차 분류상 사주 월지의 십성으로 분류시켜서 『자평진전』의 「논정관」, 「논재」, 「논편관」, 「논상관」편 등에 삽입했기 때문에, 월지 그 자체를 격(格)으로 삼는 것인 줄 착오가 생길 수 있게 된 것이다.

### 2.3 辰, 戌, 丑, 未 월령의 취격

『자평진전(子平眞詮)』의 「논잡기여하취용(論雜氣如何取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 "잡기(雜氣)에서의 투간(透干)이란 어떤 경우인가? 예를 들어 甲일주가 辰月에 태어났고 戊를 투간하면 편재를 용신하는 것이고, 癸를 투간하면 정인을 용신하는 것이고, 乙을 투간하면 월겁을 용신하는 것이다. 잡기에서의 회합(會合)이란 어떤 경우인가? 예를 들어 甲일주가 辰月에 태어났고 申과 子를 만나면 회합(會合)하여 수국(水局)이 되니 水인성을 용신하는 것이다. 하나가 투간하면 그 하나를 용신으로 삼고, 두 개가 투간하면 그 두 개를 용신으로 삼고, 투간도 하고 회합도 하면 투간된 것과 회합된 것을 병용한다. 그 합(合)이 유정(有情)하면 길하고 그 합이 무정(無情)하면 불길하다."[11]

위 인용문에서는 辰, 戌, 丑, 未 월령에서는 격(格)을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잡기월령(雜氣月令)은 지장간(支藏干)의 여기(餘氣), 중기(中氣), 정기(正氣) 그 어떤 것이 투간(透干)해도 취용(取用)하여 격으로 선정하라 했으며, 회합(會合)은 물론이고, 두 개가 투간하면 둘 다 취용해서 겸격(兼格)으로 선정하고, 회합됨과 동시에 투간해도 전부 병용(倂用)해서 겸격으로 선정하라고 기술되어 있다.

계속해서 심효첨의 『자평진전』 「논잡기여하취용(論雜氣如何取用)」에서는 잡기월령의 격국 선정에 관한 예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丙이 辰월에 생하여 癸水가 투출하면 정관(격)이 되는데 다시 乙木을 만나면 인수가 되니, 정관과 인수가 상생하고, 인수가 다시 능히 辰土 속에 암장된 土를 제거할 수 있어서 정관을 청(淸)하게 하니, 이것은 두 개의 지장간이 나란히 투출하여 수요에 합당하므로 유정(有情)하다."[12]

위 인용문을 살펴보면 심효첨은 묘지(墓支)인 辰, 戌, 丑, 未 잡기월령에서는 생지(生支)인 寅, 申, 巳, 亥 월령과는 다르게, 정기가 아닌 여기와 중기로 겸격(兼格)을 취한 것을 설명하고 있다. 즉 丙火일간이 辰월의 중기에서 투간된 癸水 정관격과 여기에서 투간된 乙木 인수격이 겸격을 이루는 것인데, 정관격과 정인격 중 어떤 격(格)이 주체가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월지의 辰 속에 암장된 土인 식상을 인수로 제거하여 정관을 구한다는 논리라면 겸격 중 정관격이 주축이 되고 기신(忌神)인 상관을 제거한 인수격은 구응(救應)이라는 뜻이 된다. 다시 말해 癸와 乙의 겸격에서는 중기에서 투간한 정관격 癸水가 곧 주체가 된다는 말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평진전』에 나와 있는 예시문을 찾아봐도 알 수 없다. 위 인용문은 그저 심효첨이 잡기월령에 관해서 두 개가 투간했을 경우 서로 겸격이 된다면, 상생하면 유정이고 상극하면 무정하다는 이론적 논리를 주장하면서 예시로 들어 설명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심효첨은 『자평진전』 「논잡기여하취용」에서 유정(有情)과 무정(無情), 그에 대한 변화의 논리를 위주로 겸격을 설명하고 있다. 「논잡기여

9) 진소암 原著, 김기승·나혁진 編譯, 『명리약언』, 다산글방, (2018), 58~59쪽. "舊書陰生於子午卯酉則子午卯酉中當亦分乙丁辛癸各若干日何以止言長生而不分日乎? 陽之所墓既能分日陰之所墓何不亦分日乎?"

10) 최원호, "명리학 격국 상신의 연원과 재해석에 관한 연구.",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140쪽.

11) 沈孝瞻. 『子平眞詮』. 台北: 瑞成書局, (1995). "何謂透干? 如甲生三月透戊則用偏財透癸則用正印透乙則用月劫是也. 何謂會支? 如甲生辰月逢申與子會局則用水印是也. 一透則一用兼透則兼用透而又會則透與會並用. 其合而有情者則為吉其合而無情者則不吉."

12) 심효첨 原著, 박영창·김미석 共譯, 『직역 자평진전』, 범진, (2018), 104쪽. "又如丙生辰月透癸為官而又逢乙以為印官與印相生而印又能去辰中暗土以清官. 是兩干竝透合而有情也."

하취용」에서 예시를 든 사주들을 살펴보면 주로 辰월의 壬水 투간을 예로 들었는데, 이를 적용한다면 잡기월령 辰, 戌, 丑, 未월의 지장간은 음양을 교차시켜서 투간된 모든 것을 취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즉 잡기월령 하나에서 최대 6가지 격을 뽑을 수 있다는 뜻이다.[13]

또한 투간하지 않았을 때 회합(會合)을 했다면 회합한 것을 격으로 선정한다. 두 개 이상 투간했을 경우에는 정기를 격으로 선정하며, 정기가 투간하지 않았으나 회합을 했다면 여기와 중기 중 회합한 중기를 격으로 선정한다.

『자평진전』에 수록된 예시를 든 명조에서 辰, 戌, 丑, 未 월지가 하나도 투간되지 않고, 회합되지도 않으며, 월지만 그대로 있는 예시 명조는 없다. 또한 잡기월령(雜氣月令)의 월지 그 자체가 격(格)으로 분류되는지에 대하여도 확실하게 정의되지 않았다. 한편 辰, 戌, 丑, 未 월지에서 회합을 하지 않은 채, 여기 중기 두 개 모두 투간한 겸격에 관하여 주체가 되는 격국 결정 방법에 대한 설명은『자평진전』에는 기술되어 있지 않았다.

## 3. 겸격(兼格)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

### 3.1 겸격의 문제점 고찰

격국(格局)의 설정에는 순위가 있고 격국에도 순수성과 혼잡이 있다. 즉 월지에서 정기(正氣)가 투출하였다면 격이 순수하니 순금(純金)과 같으며, 여기(餘氣)나 중기(中氣)가 투출하여 격이 설정된다면 격을 이루나 월지에 오행이 다르므로 일간에게 미치는 오행의 순수성이 전일하지 못하여 마치 18금이나 14금과 같이 순도가 떨어지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또한 월지에서 정기와 중기, 여기가 동시에 투출하여 여러 격을 이루게 된다면 일간이 하나의 격에 충실할 수 없으므로 작용이 번잡스럽고 혼탁한 것으로서 이를 격국혼잡(格局溷雜)이라고 하는 것이다.[14]

심효첨은『자평진전(子平眞詮)』에서 이를 가리켜 겸격(兼格)이라고 칭하였다.『자평진전』에서 십성의 가장 큰 특징은 정재격와 편재격을 나누지 않고 재격으로 통합했고 정인격과 편인격 역시 나누지 않고 인수격으로 통합했다. 길신격으로 재격, 정관격, 인수격, 식신격으로 분류시켜 순용하여 상신을 선정했고 흉신격으로는 칠살격, 상관격, 록겁격, 양인격으로 분류시켜 역용하여 상신(相神)을 선정했다.[15] 이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십정격(十正格)으로 분류하면 정재격과 편재격, 정관격, 정인격과 편인격, 식신격은 길신격이다. 그리고 편관격, 상관격과 외격인 양인격과 건록격, 월비와 월겁은 흉신격이다. 그리고 전왕격(全旺格)은 정격이 아니므로 상신의 설정에 관한 내용이 없다.

겸격(兼格)이 되는 경우 격의 주체 및 결과적 격국이 최종적으로 어떠한 격으로 결정되었는지 알고 있어야만 순역(順逆)의 원리에 따라 격국별 상신(相神)을 설정하고 격의 성패를 파악하여 사주 간명을 할 수 있다. 하지만『자평진전(子平眞詮)』에는 겸격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겸격의 최종 주체가 되는 격을 결정하는 법칙에 대해서는 기술되어 있지 않다.

두 개 이상의 격을 겸하고 있는 겸격(兼格)에서 격국의 주체를 반드시 선정하지 않았을 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월지가 회합(會合)되었지만 월지에서 투간(透干)된 것이 없을 때, 회합이 식상(식신, 상관) 또는 관살(정관, 편관)일 경우.

둘째, 寅, 申, 巳, 亥 월령에서 회합되고 음양만 다른 같은 오행들이 투간되었을 때, 투간된 것이 식상(식신, 상관) 또는 관살(정관, 편관)일 경우.

셋째, 辰 戌 丑 未 월령에서 회합하고 음양만 다른 같은 오행들이 투간되었는데, 투간된 것이 식상(식신, 상관) 또는 관살(정관, 편관)일 경우.

넷째, 辰 戌 丑 未 월령에서 회합되지 않았지만 같은 오행 두 개가 음양이 다르게 투간했을 때, 투간된 것이 식상(식신, 상관) 또는 관살(정관, 편관)일 경우.

본 연구자는 이 네 가지 겸격의 경우에 관하여 격의 주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먼저『자평진전(子平眞詮)』의 기조 이론을 기반으로 자평명리학과 격국에 관련된 고전(古典)과『자평진전』의 격국 이론에 관한 현대의 여러 논문 및 각종 문헌을 고찰했다. 다음으로 연구자가 직접 내담했었고 겸격으로 격국의 주체 선정으로 고민했었던 사주 명조를 포함하여 앞의 네 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10가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비교 분석하여 논리적으

13) 최원호, "명리학 격국 상신의 연원과 재해석에 관한 연구.",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142~143쪽.
14) 김기승,『격국용신 정해』, 다산글방, (2013), 73~74쪽.
15) 김남석, "『자평진전』의 격국·용신 변화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8), 22~28쪽 참조.

로 검증하고자 한다.

### 3.2 겸격에서 주체 선정의 사례 분석

첫째, 월지가 회합(會合)되었지만 월지에서 투간(透干)된 것이 없을 때, 회합이 식상(식신, 상관) 또는 관살(정관, 편관)일 경우의 주체 선정에 관한 사례를 분석하겠다.

사례 1. 庚申년 庚辰월 庚子일 丙戌시

위 사례 1은 辰월 庚金이 월지가 삼합회국(三合會局)이 되었다. 회합(會合)해서 일명 식상격(食傷格)이 되었는데 식신격인지 상관격인지 『자평진전』의 기조 이론으로는 구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식신격과 상관격의 겸격(兼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겸격의 주체를 선정해야만 격국의 순역(順逆)에 따라 상신(相神)을 선정할 수 있다. 월령 지장간 辰 중 癸水를 취한다면 상관격이 되겠으나 잡기월령이라 음양교차 투간이 가능하고 삼합회국이 되었기에 강한 양(陽)의 기운인 壬水를 취하여 식신격을 겸격의 주체로 선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수 있다.

위 사례 1은 길신격인 식신격이 주체가 되므로 순용(順用)하여 격을 생하는 비견을 상신으로 선정한다. 격은 삼합회국이 되었고 상신인 비견은 연지와 시지에 통근(通根)하여 격과 상신이 매우 유력하기에 식신격이 성격(成格)되었다.

사례 2, 庚申년 庚辰월 庚申일 丙戌시

위 사례 2는 辰월 庚金이 월지가 회합(會合)해서 일명 식상격이 되었는데 이 역시 식신격인지 상관격인지 『자평진전』의 기조 이론으로는 구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식신격과 상관격의 겸격(兼格)이라 할 수 있다. 회합은 되었으나 왕지(旺支)인 子水가 빠진 상태이다. 辰중 癸水가 음양교차하여 회합된 申중 壬水를 취하여 식신격을 겸격의 주체로 선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위 사례 2는 식신격의 상신인 일간의 근과 비견이 매우 강하고 격기신인 인수가 있지만 월지에 회합하여 격으로 변화하였거나 비겁에게 설기되었기에 격을 극하지 못하기에 식신격이 성격(成格)되었다.

사례 3. 庚午년 庚辰월 庚子일 丙戌시

위 사례 3은 辰월 庚金이 월지가 회합(會合)해서 일명 식상격이 되었는데 이 역시 식신격인지 상관격인지 구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식신격과 상관격의 겸격(兼格)이라 할 수 있다. 회합은 되었으나 생지(旺支)인 申金이 빠진 상태이므로 辰중 癸水와 회합된 子중 癸水의 세력을 취하여 상관격을 겸격의 주체로 선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위 사례 3은 흉신격인 상관격이 주체가 되므로 역용(逆用)하여 시지의 인수를 상신으로 쓴다. 사주 원국에 상신을 극하는 기신인 재성이 없으며, 구응신인 천간의 비견들이 시지에 통근하여 유력하기 때문에 재성운이 와서 상신인 인성을 극하려 해도 구응을 할 수 있다. 또한 午戌 회합하고 시간에 투간한 칠살에게 생조를 받은 상신 인수 역시 흉신격인 상관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기에 상관격이 성격(成格)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寅, 申, 巳, 亥 월령에서 회합되고 음양만 다른 같은 오행들이 투간되었을 때, 투간된 것이 식상(식신, 상관) 또는 관살(정관, 편관)일 경우의 주체 선정에 관한 사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 4. 乙丑년 辛巳월 甲申일 庚午시

위 사례 4는 巳월 甲木이 월지가 회합(會合)하고 庚金과 辛金이 모두 투간하여 일명 관살혼잡격이 되었는데 이 역시 정관격인지 편관격인지 『자평진전』의 기조 이론으로는 구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관격과 편관격의 겸격(兼格)이라 할 수 있다. 회합은 되었으나 왕지(旺支)인 酉金이 빠진 상태에서 월간에는 정관이 시간에는 편관이 투간 되었다. 회합이 되었다 해도 월령에 암장된 巳중 庚金의 기세를 인정하여 편관격을 겸격의 주체로 선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위 사례 4는 편관격의 상신인 식상이 월지는 회합하고 午火 홀로 막강한 칠살을 제압하지 못해 편관격은 패격(敗格)이 되었으나 행운에서 식상이 투간을 한다면 패중유성(敗中有成)이 될 것이다.

사례 5. 庚申년 辛巳월 乙酉일 丁丑시

위 사례 5는 巳월 乙木이 월지가 삼합회국(三合會局)이 되었다. 회합(會合)하고 庚金과 辛金이 모두 투간하여 일명 관살혼잡격이 되었는데 이 역시 정관격인지 편관격인지 『자평진전』의 기조 이론으로는 구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관격과 편관격의 겸격(兼格)이라고 할 수 있다.

삼합회국(三合會局)한 상태에서 정관과 편관이 모두 투간했기에 관살의 기세가 엄청나다. 일간은 무근(無根)한데 생조까지 받지 못해 극설교가(剋洩交加) 된 일간의 입장에서 관살 혼잡을 바라본다면 겸격의 주체는 편관격으로 선정하는 것이 합당하고 판단된다.

위 사례 5는 흉신격인 편관격이 주체가 되므로 역용(逆用)하여 시간의 식신을 상신으로 식신제살(食神制殺)을 도모하지만 식신을 생조하는 일간이 미약하여 편관격은 패격(敗格)이 되었다.

사례 6. 乙卯년 丁亥월 癸未일 甲寅시

위 사례 6은 亥월 癸水가 월지가 삼합회국(三合會局)이 되었다. 회합(會合)하고 甲木과 乙木이 모두 투간하고 일명 식상격이 되었는데 식신격인지 상관격인지『자평진전』의 기조 이론으로는 구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식신격과 상관격의 겸격(兼格)이라 할 수 있다. 삼합회국(三合會局)한 상태에서 년간에는 乙木 식신이 투간됐고 시간에는 甲木 상관이 투간했기에 식상의 기세가 강력하여 인성의 생조를 못받은 일간은 설기태심(洩氣太甚)이 되었다. 설기태심 된 일간의 입장에서 근왕하고 강력한 식신과 상관의 혼잡을 바라본다 생각하면 겸격의 주체를 상관격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위 사례 6은 흉신격인 상관격이 주체가 되므로 역용(逆用)하여 인성을 상신으로 삼아야 하지만, 사주 원국은 물론이고 지장간에 조차도 아예 인성이 없기에 상관격은 패격(敗格)이 되었고 만약 행운에서 상신인 인성운이 온다고 해도 패중유성(敗中有成)이 될 수 없기에 운이 발복하기는 어렵다.

셋째, 辰 戌 丑 未 월령에서 회합하고 음양만 다른 같은 오행들이 투간되었는데, 투간된 것이 식상(식신, 상관) 또는 관살(정관, 편관)일 경우의 주체 선정에 관한 사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 7. 辛酉년 乙未월 己亥일 甲子시

위 사례 7은 未월 己土가 월지가 회합(會合)하고 甲木과 乙木이 모두 투간하여 일명 일명 관살혼잡격이 되었는데 이 역시 정관격인지 편관격인지 구분할 수 없으므로 정관격과 편관격의 겸격(兼格)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간에 투간한 甲木은 일간인 己土와 천간 합을 하였기에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한편 월간에 투간한 乙木은 연간의 辛金이 상극하지만 未월의 辛金 식신은 통근했지만 기세는 그리 강력하지는 못하다. 하지만 월지가 회합하고 투간한 월간의 乙木 편관은 회합으로 그 기세가 강력하므로 辛金의 상극에도 크게 손상되지 않기에 편관격을 겸격의 주체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 사례 7은 흉신격인 편관격이 주체가 되므로 역용(逆用)하여 연주의 식신을 상신으로 삼아 식신제살을 도모한다. 그리고 상신을 극하는 기신인 인성이 회합된 월지에 암장 되어 있으며, 행운에서 인성이 온다고 하여도 일지와 시지에 방합된 재성이 식신을 충분히 구응(救應)할 수 있기에 편관격이 성격(成格)이 되었다.

사례 8. 丁巳년 庚戌월 甲寅일 丙寅시

위 사례 8은 戌월 甲木이 월지가 회합(會合)하였고 丙火와 丁火 모두 투간해서 일명 식상격이 되었는데 식신격인지 상관격인지에 관해서는『자평진전』의 기조 이론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식신격과 상관격의 겸격(兼格)이라고 할 수 있다. 회합은 되었으나 왕지(旺支)인 午火가 빠진 상태이다. 시간에 투간된 식신 丙火는 회합에 통근함과 동시에 지지의 연, 월, 일, 시에도 모두 통근하였기에 세력이 매우 막강하다. 한편 연간에 투간된 상관 丁火는 회합 및 연지와 월지에는 통근하였으나 일지와 시지에는 통근하지 못해 지지에 모두 통근한 식신 丙火보다는 세력이 약하다. 그러므로 식신격을 겸격의 주체로 선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위 사례 8은 길신격인 식신격이 주체가 되므로 순용(順用)하여 격을 생하는 일간의 근왕과 비견을 상신으로 선정한다. 격은 회합이 된 가운에 지지에 모두 통근하였고 상신인 비견이 일지와 시지에 있으며 일간을 통근(通根)시켜 근왕하게 만든다. 식신격의 기신인 인성은 사주 원국은 물론 지장간에도 없으며 격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행운에서 기신운을 만나더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격과 상신이 모두 유력하기에 식신격이 성격(成格)되었다.

넷째, 마지막으로 辰 戌 丑 未 월령에서 회합되지 않았지만 같은 오행 두 개가 음양이 다르게 투간 되었을 때, 투간된 십성이 식상(식신, 상관) 또는 관살(정관, 편관)일 경우의 주체 선정에 관한 사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 9. 壬戌년 丁未월 庚子일 丙戌시

위 사례 9는 未월 庚金이 월지가 회합(會合)되지 않았으며, 월간에는 정관인 丁火가 시간에는 편관인 丙火가 모두 투간하여 일명 관살혼잡격이 되었다. 이 역시 정관격인지 편관격인지 구분할 수 없고『자평진전』의 기조 이론으로는 판단할 수 없기에 정관격과 편관격의 겸격(兼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관과 편관의 기운이 대등하다. 庚金일간은 연지와 시지에 있는 戌中辛金 통근해서 일간의 근이 적절하게 왕하다. 월간에 투출된 丁火가 연지의 壬水가 천간 합이되어 정관이 식신과의 합을 탐하느라 탐합망관(貪合忘官) 또는 탐합망생(貪合忘生)이 되었다. 현대적인 해석으로는 일간이 근왕하고 정관과 식신이 합이 되었으므로 재능을 키워서 직장생활에서 동료들과 경쟁 속에서 조직에게 자신의 능력을 크게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관이 식신과 합을 하였기에 월지에서 음양교차하고 투간한 시간의 丙火 편관을 용(用)하여 편관격을 겸격의 주체로 선정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위 사례 9는 흉신격인 편관격이 주체가 되므로 역용(逆用)하여 연주의 식신을 상신(相神)으로 삼아 식신제살을 도모한다. 그리고 상신을 극(剋)하는 기신(忌神)인 인성이 식신을 극한다면 사주 원국에서 재성의 부재로 인하여 편관격의 상신인 식신을 구응(救應) 할 수가 없기에 편관격은 패격(敗格)이 되었다. 하지만 행운에서 재성운이 들어와 월지의 未중 乙木에 통근하여 투간하거나 월지와 회합(會合)을 한다면 구응신인 재성이 인성을 상극하여 상신에게 구응(救應) 작용을 하므로 패중유성(敗中有成)이 되어 편관격은 성격(成格)을 이룰 수가 있다.

사례 10. 丙寅년 壬辰월 丁亥일 癸巳시

위 사례 10은 辰월의 丁火가 월지가 회합(會合)되지 않았고, 월간에는 정관인 壬水가 시간에는 편관인 癸水가 모두 투간하여 일명 관살혼잡격이 되었다. 이 역시 정관격인지 편관격인지 구분할 수 없기에『자평진전』의 기조 이론상으로는 정관격과 칠살격의 겸격(兼格)이라고 할 수 있다. 월간에 투간한 정관 壬水는 겁재인 丙火를 제압하려 하지만 일간 丁火와 丁壬합으로 천간 합을 이루기에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한편 시간에 투간한 편관 癸水는 천간으로 丁壬합 된 일간 丁火를 상극(相剋)하지 못하므로 시간에 투출한 癸水를 격으로 선택하고 편관격을 겸격(兼格)의 주체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 사례 10은 흉신격인 편관격의 상신(相神)인 식신 己土가 없어서 패격인데, 만약 행운에서 상신인 土기운이 온다고 해도 사주 원국 자체가 木 기운이 왕성한 辰월에 寅木까지 방합(方合)을 하여 상신의 기신(忌神)인 인성이 왕성하나, 이를 제어할 구응신(救應神)인 재성 또한 무력(無力)하기에 구응 작용을 하지 못한다. 그렇기에 편관격의 상신인 식신은 너무나도 무력하고 원국의 왕성한 인성에 의해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으므로 편관격은 패격(敗格)이 되었다.

## 4. 결 론

『자평진전(子平眞詮)』의 기조 이론과 겸격(兼格) 이론에서는 최종적으로 겸격의 주체를 결정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았다. 그 때문에 사주가 혼잡하여 겸격이 되는 경우, 어떤 격으로 격국(格局)이 최종적인 주체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만 순역(順逆)의 원리에 따라 격국별 상신(相神)을 설정하고 격의 성패(成敗)를 가늠하여 사주 간명(看命)을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겸격(兼格)의 최종적 주체를 결정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명리학도들은 논리적 혼돈에 빠질 수 있으며『자평진전』의 격국 이론을 매우 오랜 기간 연구한 명리학계의 강호제현 선배들은 각자만의 법칙을 터득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 또한 논리적으로 빈약한 것임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십정격(十正格) 중 내팔격(內八格)인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 정인에서 상신(相神)과 구응(救應)을 같은 오행의 십성으로 사용하고『자평진전』에서 통합하여 사용된 재성(정재,편재)과 인성(정인,편인)을 제외한 격국(格局)에서 길신격인 정관격과 식신격, 흉신격인 편관격과 상관격에 대해 겸격(兼格)의 주체를 결정하는 방법론에 관해서 각종 조건을 분류시켜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공통된 법칙을 주관적으로 산출했다.

도출된 결론에서 중요사항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월지가 회합(會合)이 되었을 경우 월지와 회합된 지지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겸격(兼格)의 주체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삼합회국(三合會局)이 되었으나 천간에 투간(透

干)된 것이 없다면 월지의 생(生), 왕(旺), 묘(墓)를 판단하여 왕지월령(旺支月令)이면 그 자체를 겸격(兼格)의 주체로 선정했고 생지월령(生支月令)이나 잡기월령(雜氣月令)의 경우에는 월지의 지장간(支藏干) 중기(中氣) 음양의 기준으로 겸격의 주체를 선정했다. 삼합회국(三合會局)이 되며 천간에 겸격이 투간되었다면 일간이 매우 신약(身弱)한 경우에는 일간의 입장에서 불리하게 느끼는 십성(十星)을 겸격의 주체로 선정한다. 일간이 그다지 매우 신약하지 않는다면 월지의 생(生), 왕(旺), 묘(墓)를 기준으로 투간(透干)된 십성 중 월지와의 상호작용과 겸격의 십성 중 기세(氣勢)가 강력한 것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겸격의 주체로 선정한다. 또한 회합(會合)과는 관계없이 월지에서 투간한 겸격이 천간 합이 이루어지면 그 십성은 겸격의 주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천간 합이 안된 다른 십성을 겸격의 주체로 선정했다.

한편 겸격에서 일간이 매우 신약(身弱)한 경우에는 일간의 입장에서 불리하게 느끼는 십성(十星)을 겸격의 주체로 선정하면 된다. 그리고 겸격에서 일간이 그다지 많이 신약하지는 않는다면, 겸격의 십성 중 기세(氣勢)가 강력한 것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겸격의 주체로 선정한다. 그런 경우에는 같은 오행의 십성에서 양간(陽干)을 주체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월지에서 천간으로 투간(透干)된 양간은 다른 지지에 통근(通根), 득령(得令), 득지(得支), 득세(得勢)의 범위가 음간(陰干)보다 넓다.[16] 그러므로 동등한 입장에서는 양간의 기세(氣勢)가 음간보다 강력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간이 매우 신태왕(身太旺)한 경우에는 겸격의 두 십성 중 일간과의 상호작용과 그 기세에 따라서 겸격의 주체로 선정하면 된다.

하지만 이처럼 겸격의 주체를 선정하더라도 사주에 나타난 인간 심리와 사회적·직업적 특성은 겸격의 주체와는 달리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사례 분석을 했던 겸격을 이루는 십성인 식신과 상관, 정관과 편관을 비롯하여, 본 연구의 사례 분석에서 제외되었던 정재와 편재, 정인과 편인, 비견과 겁재가 사주 원국에 서로 혼잡되어 있다면 식신과 상관은 상관의 특성이, 정재와 편재는 편재의 특성이, 정관과 편관은 편관의 특성이, 정인과 편인은 편인의 특성이 비견과 겁재는 겁재의 특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16) 김성태,『음양오행』, 텍스트북스, (2010), 162~168쪽 참조.

연구자는 겸격(兼格)의 주체를 선정하는 방법론에 관하여 먼저 각종 문헌을 고찰하였다. 이에 여러 가지 겸격 사례를 비교 분석한 후 공통된 겸격 주체에 대한 법칙을 주관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겸격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 References

[1] 루즈지 原著, 김연재 譯,『명리학의 이해Ⅱ』, 사회평론, (2018).
[2] 김기승,『명리학정론上』다산글방, (2020).
[3] 김성태,『격국과 용신』, 새움, (2006).
[4] 김미정, "『자평진전』의 격국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5] 심효첨 原著, 김기승·나혁진 編譯,『산음 자평진전』, 다산글방, (2021).
[6] 최원호, "명리학 격국 상신의 연원과 재해석에 관한 연구.",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7] 진소암 原著, 김기승·나혁진 編譯,『명리약언』, 다산글방, (2018).
[8] 沈孝瞻.『子平眞詮』. 台北: 瑞成書局, (1995).
[9] 심효첨 原著, 박영창·김미석 共譯,『직역 자평진전』, 범진, (2018).
[10] 김기승,『격국용신 정해』, 다산글방, (2013).
[11] 김남석, "『자평진전』의 격국·용신 변화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8).
[12] 김성태,『음양오행』, 텍스트북스, (2010).

**최 원 호(Choi, Won-Ho)**

- 2014년 9월~현재: 목원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작곡학부 겸임교수
- 2023년 2월: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대학교 동양학 박사
- 2020년 2월: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대학교 동양학 석사
- 2007년 6월: 프랑스 파리국립음악원(CNR de PARIS) 졸업(음악박사)
- 관심분야: 명리학, 음악, 클래식 기타, 내단, 점성학, 성명학
- E-Mail: guitara2000@mokwon.ac.kr

**김 기 승(Kim, Ki-Seung)**

- 2012년 3월~현재: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동양학과 교수
- 2005년 3월~2011년 4월: KICU대학원 교수
- 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 박사
- KICU 대학원 교육학 박사
- 관심분야: 진로교육, 선천적성, 직업상담, 명리학, 문예창작
- E-Mail: kbs4984@hanmail.net